



티엔에스모터스 접이식 전기자전거 '모아'

# 3초 만에 접은 뒤 카트처럼 손쉽게 끌고 다녀

전기자전거를 펼치거나 다시 접는 데는 3초면 충분했다. 손잡이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손잡이가 반으로 접혔다. 안장 아래에 있는 레버를 당기면 안장이 프레임 속으로 사라졌다. 이어 프레임 위에 있는 손잡이만 위쪽으로 끌어당기면 자전거 길이가 40cm 남짓으로 줄어들었다. 앞바퀴와 뒷바퀴가 모두 바닥에 닿아 있어 끌고 다니기도 좋다. 펼치는 방법은 더 쉬웠다. 국내 중소기업 티엔에스모터스가 제작한 접이식 전기자전거 모야3다. 김기덕 티엔에스모터스 대표는 “접은 뒤에도 카트를 끌듯 쉽게 끌고 다닐 수 있어 자하철 같은 대중교통과 연계해 쓰기 좋다”고 말했다.

국에 있는 대리점 50곳이나 오픈마켓에서 구입하면 된다. 김 대표는 “전체 주문량 중 20%는 언덕이 많은 도시인 부산에서 들어온다”며 “자하주차장 정도의 경사는 거뜰하다”고 말했다. 탈착

접은 후 자전거 길이 40cm  
지하철서도 휴대 불편없어

기어 넣고 바퀴끼기 키우고  
대용량 배터리로 거리 늘려

5월부터 1000대 인도 수출  
내년엔 사륜오토바이 출시

◆ 언덕 많은 부산에서 인기  
티엔에스모터스가 판매 중인 전기자전거는 모야2, 모야3 두 종류다. 모야2를 내놓은 것은 2011년으로 꾸준히 디자인과 완성도를 높였다. 모야3는 2015년 출시했다. 모야2에는 없는 기어를 넣었으며 바퀴 크기를 키우고 대용량 배터리를 넣어 이동거리를 늘렸다. 김 대표는 “출퇴근 거리가 20km 내외라면 모야2를, 30km 내외면 모야3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두 모델은 가격이 각각 130만원대, 150만원대다. 전

석인 배터리는 도난을 막기 위해 네 자릿수 암호를 넣어야만 분리할 수 있다. 김 대표가 전기자전거를 제작한 것은 모야가 처음이 아니다. 전기자전거라는 개념이 생소하던 2000년대 초반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에너지, 환경영양 문제를 전기자전거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리튬배터리가 없었다. 자동



김기덕 티엔에스모터스 대표가 전기자전거 모야3를 설명하고 있다. 이우상 기자

차에서 쓰는 무거운 납배터리를 쓰다 보니 자전거 무게는 무겁고, 배터리 용량도 작아 먼 거리를 달릴 수 없었다. 2009년이 돼서야 자전거에서 쓸 수 있는 수준의 리튬 배터리가 나왔다. 김 대표는 전기자전거사업을 위해 티엔에스모터스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전기자전거 모야를 내놨다. 모야는 단종됐다. 지금까지 모야는 모두 1만여 대가 팔렸다.

◆ 미국 인도에 수출  
티엔에스모터스는 올해부터 모야 전기자전거를 수출하기 시작했다. KOTRA의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사업 대상에 선정되면서다. KOTRA의 지원으로 인도 업체와 계약해 지난 5월부터 전기자전거 1000대를 공급 중이다. 6월부터는 미국에도 소량씩 수출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도 거는 기대가 크다. 내년 3월부터는 속도 제한, 무

◆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매일(kim@hankyung.com)로 신청받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 11월의 으뜸중기 제품  
△ 이지랑이-온도 유지 보온병 △ 디아나톤-디지털피아노 DPR-3160K 렌탈 △ 유진로봇-로봇청소기 아이클레보 오메가 △ 티엔에스모터스-접이식 전기자전거 모야2

게, 구동 방식 등 조건을 갖추면 전기자전거도 자전거전용도로를 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자세한 기능 등은 밝힐 수 없지만 새로운 모델도 개발이 끝나 내년 하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상 매출은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 내년 20억 원이다. 전기자전거를 개발하며 얻은 노하우를 활용해 배터리와 모터로 움직이는 사륜오토바이(ATV)도 내년 하반기 출시할 예정이다. 관광지에서 레저용으로 쓰이는 기존 사륜오토바이를 대체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이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 와이바이오로직스·바이로메드·녹십자랩셀 면역항암제 개발 나섰다

암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는 면역항암제 개발에 국내 바이오벤처가 속속 뛰어들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면역항암제 개발에 뛰어든 국내 바이오벤처는 와이바이오로직스·바이로메드·녹십자랩셀 등이다. 이들은 기존 면역항암제의 차별성을 앞세워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와이바이오로직스는 내년 면역관문억제제 후보물질의 전임상시험(동물실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종항체는 두 개의 항원을 동시에 억제해 단일 항체보다 좋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이다. 박법천 와이바이오로직스 부사장은 “비싼 외국산 면역관문억제제를 대체할 국산 의약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이로메드는 최근 CAR-T 개발 계획을 내놨다. CAR-T는 환자 혈액에서 채취한 T세포를 조작해 암세포만을 강력하게 공격하도록 개발한 면역항암제다. 올 8월과 10월에 미 식품의약국(FDA)에서 허가

받은 노바티스의 킴리아와 길리어드의 에스카타는 혈액암 치료율이 80%를 웃돈다. 다만 혈액암에서 많이 나타나는 물질을 표적하기 때문에 고효율에서는 효능이 떨어진다. 바이로메드는 2015년 미국 블루버드바이오에 기술수출한 VM801 외에 세 개의 CAR-T 후보물질을 2020~2022년에 차례로 임상 1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기존과는 다른 표적을 대상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녹십자랩셀은 자연살해(NK)세포를 이용해 면역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다. 간암을 대상으로 국내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 NK세포를 이용한 면역항암제 개발에서 세계에서 속도가 가장 빠르다. 황우경 녹십자랩셀 세포치료연구소장은 “T세포는 자신의 것이 아니면 몸속에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NK세포는 다른 사람 것이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다”며 “면역항암제가 있어 상암화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녹십자랩셀은 암세포 추적 기능을 강화한 CAR-NK의 전임상도 내년에도 할 예정이다. 한민구 기자 hms@hankyung.com

## 안경업체 대표로 변신한 펀드매니저

이기현 지엘아이엔씨 대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개발



사시절에 업체 안경업체에 투자한적이 있는데 기업경영을 경험하려고 창업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명한 증권업계 펀드매니저가 안경업체 대표로 변신했다. 교보증권 자산운용본부장(상무) 출신인 이기현 지엘아이엔씨 대표(사진)는 눈에 해로운 푸른색 빛(청광)을 차단하는 안경을 개발,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엘아이엔씨는 안경업계 종사자와 영업전문가 다섯 명이 협업하는 형태의 소기업이다. 이회사가 개발한 안경은 청광을 49%가량 차단한다.

그는 “LCD(액정표시장치) LED(발광다이오드)에서 나오는 청광이 눈에 해로운데 비싸다는 이유로 이를 차단하는 안경을 구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내놨다”고 말했다. 브랜드는 블루라이트 차단 보안경 블루컷49이며 소비자가격은 1만2000원이다. 그는 “필름 타입으로 개발해 가볍고 안경 착용자와 미적용자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디자인했다”고 설명했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 스마트체온계로 신생아 체온 10초마다 자동 체크

초이스테크놀로지 개발

아기들 겨드랑이에 붙여  
일정온도 벗어나면 알람  
한번 충전에 14일 사용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는 간호사가 아기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수시로 체온을 잰다. 스마트 체온계 써모세이퍼(사진)가 나오면서 이런 풍경이 달라졌다. 아기 겨드랑이에 5cm 크기의 써모세이퍼만 붙여놓으면 간호사는 컴퓨터와 휴대폰을 통해 아기들의 체온 그래프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10초 간격으로 체온을 기록하다 일정 온도 범위를 벗어나면 알람이 울린다.

인증을 받아 내놓은 스마트 체온계다. 이마 겨드랑이 등에 부착하면 클라우드 플랫폼과 휴대폰 앱(응용프로그램)에 10초 간격으로 체온 데이터를 보내준다. 주기적으로 아기를 봐줘야 하는 산부인과 신생아실, 산후조리원, 영유아 어린이집을 겨냥해 내놓은 이 제품은 인하대병원 등에서 신생아실 풍경을 바꿔놓고 있다.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로도 월평균 700여 개 판매될 만큼 인기다. 아이를 맡겨놓고 출근해야 하는 엄마가 아기 체온을 원격 확인하는데 쓰인다.

초이스테크놀로지는 2001년 무선 프리젠테이션을 개발하는 등 17년간 블루투스, 무선통신 등의 분야에서 노하우를 쌓아왔다. 하지만 시장 자체가 워낙 틈새시장이라서 매출 규모를 더 늘리기 어렵다고 판단, 5년 전부터 무선통신 노하우를 활용한 스마트 체온계 시장에 도전했다. 써모세이퍼는 겨드랑이에 부착했을 때 15m, 이마에 부착했을 때 최대 50m까지 체온 데이터를 송신한다. 한 번 배터리를 충전하면 연속으로 14일간 사용할 수 있다. 최순필 초이스테크놀로지 대표는 “시중에 나오는 스마트 체온계 대부분이 1회적으로 체온을 확인하는 정도이고 신체에 붙여 지속적으로 온도를 확인하는 유사제품도 최대 사용시간이 5~6시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인천=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중소기업판로, 공공기관이 앞장선 17년도 공공구매 촉진  
공공구매 우수기관·유공자 표창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연 '2017 공공구매 촉진대회'에서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게 정부표창을 수여했다. 앞줄 왼쪽부터 박용근 한국식품연구원장, 권장섭 신용보증기금 전무, 최수규 증기부 차관, 유광중 광주광역시도시장, 사정 직무대행, 김재덕 인천항만공사 팀장, 조준선 한국공항공사 과장. 중소기업부 제공

시몬스 사당점 개점

침대 및 매트리스 전문 브랜드 시몬스가 서울 방배동에 사당점을 열었다. 대표적인 매트리스 제품인 뷰티레스트와 감각적인 디자인의 침대 프레임, 케노사 가구 및 침구류 등 시몬스의 모든 침실 가구와 소품을 판매한다.

시몬스 관계자는 “시몬스는 6성급 호텔에 많이 들어가는 데 케노사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수면 환경을 재현해 줄 것”이라며 “사당점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을 증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해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 M&A(기업매도,인수)를 원 하십니까?

※ 한국M&A거래소(KMX)는 국내 “최다 M&A정보 보유조직”으로 귀사의 M&A를 지원합니다

★성장형M&A 환영 (일명 선진국형 M&A) ⇒ 즉 잘나가는 기업을 매각 할 경우 더 유리한 조건, 더 좋은 가격으로 매각

☞ KMX가 개최한 「2017중소기업 M&A설명회」에서 M&A상담 장면 (행사현장에서 2시간동안 약 30개회사와 M&A상담)

☞ “KMX”는 내부매칭으로 다른 M&A기관을 통하지 않고 수행하기 때문에 비밀유지, 보안유지가 탁월하고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M&A상담 환영]

- ①기업인수를 통해 ⇒ 경쟁력제고, 융합시너지창출, 신성장동력확보, IPO(주식시장), 신사업진출, 인수 후 기업가치제고
- ②기업매도(Exit)를 통해 ⇒ 창업자보상 및 투자금회수, 투자수익실현, 업종전환, 사업리스크 제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 ③가업승계형 M&A(기업매도) ⇒ 물려줄 자녀가 없는 경우 매각, 물려줄 자녀가 있지만 상속세/증여세 등 세금문제로 매각

지금 [www.kmx.kr](http://www.kmx.kr) 에 들어 오시면 귀하가 원하는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M&A신청방법 : [www.kmx.kr](http://www.kmx.kr) 에서 [맞춤식상담] [사전상담] [직접 M&A매도/인수 등록] Tel. 02)783-7500

★M&A는 나와 잘 맞는 상대방을 찾을 때 성공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M&A거래소」의 장점입니다

**KMX 한국M&A거래소**  
KOREA M&A EXCHANGE